

EYA NEWSLETTER

ENGLISH TITLES

FICTION

제목 : THE WRONG MAN

가제 : 엉뚱한 용의자

저자 : Kate White

출판사: Harper Paperbacks

발행일: 2015년 6월 16일

분량 : 336 페이지

장르 : 소설



지루한 삶을 벗어나고 싶던 여자가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자와 만나 시작된 숨막히는 심리 스릴러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Eyes on You》의 작가 케이트 화이트가 사회에서 성공한 한 여성이 정체불명의 남자를 만나 벌어지는 심리 서스펜스 소설로 돌아왔다. 늘 꿈꾸던 남자인줄만 알았지만 일생일대 최악의 악몽이 되어버린 사람. 그는 대체 누구일까? 맨하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로 활동 중인 키트 핀. 대담하고 모험을 즐기는 그녀는 일에서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최고의 명성을 얻고 있지만, 사생활은 지루하기만 하다. 그래서일까, 업무 차 방문한 플로리다의 어느 리조트에서 폭 자고 일어난 키트는 자신의 인생에도 뭔가 아슬아슬한 기분을 느끼게 해줄 일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강렬한 감정을 느낀다. 철망에 들어가 상어 바로 옆에서 수영을 한다거나 눈부시게 파란 플로리다 바닷가 위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는 그런 모험이 아닌, 다시 심장이 쿵쥔대고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긴장되는 그런 일이 찾아오길 바랐다. 지금까지 카약 타기, 스톤 마사지, 등산까지 모두 시도해봤지만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채울 수 없는 욕구였다. 서른다섯에 접어든 지금, 자신과 전혀 맞지 않는 남자와 5개월이나 질질 끌며 만나다가 겨우 정리한 이 시점에 키트는 ‘나쁜 여자’가 되고 싶었다. 함께 일하는 일흔한 살 디자인 파트너가 출장 길에 오른 키트에게 해준 말이 자꾸만 귀에 맴돌았다. “착한 여자는 천국에 가지만, 나쁜 여자는 어디든 간다네.”

위험하더라도 스릴 넘치는 일을 기대하던 키트는 리조트에서 우연히 어떤 남자를 만난다. 곳곳에서 몇 번 마주치면서 얼굴이 익숙해진 사람인데, 한 기념품 가게에서 제대로 얼굴을 마주하게 된 것이다. 남자는 키트에게 저녁을 같이 하자고 제안했고, 그녀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강인한 체격을 가진 그 낯선 남자는 자신을 매트 할리라고 소개했다. 저녁을 함께한 후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남자의 방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셨다. 그리고 다음 날 키트는 뉴욕으로 돌아왔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키트는 매트를 떠올리며, 폭 빠질 정도로 그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그냥 하룻밤 즐겁게 보낸 상대로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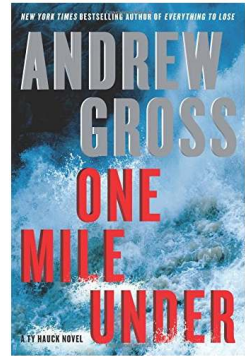
남의 행세를 하고 다닌다는 남자, 치밀한 계획 속에 조종당하는 한 여자의 인생

그런데 공항에 내려 택시에 오른 키트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온다. 매트였다. 예상치 못한 그의 전화에 놀란 것도 잠시, 그는 다시 만나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고 싶다며 며칠 후 자신의 아파트에 와 달라고 초대한다. 이번에도 수락하는 키트. 왠지 흐뭇한 기분에 젖은 키트의 얼굴에는 돌아오는 택시에서 내내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약속한 날이 찾아오고, 한껏 부푼 마음으로 호화로운 그의 아파트를 찾은 키트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가 알려준 호수로 찾아가 벨을 눌렀는데, 문을 연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다른 남자였다. 당황해 하며 매트를 찾는 키트에게, 그 남자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 바로 자신이 진짜 매트 힐리이며, 얼마 전 어떤 남자가 지갑을 훔쳐갔고 그가 자기 행세를 하며 돌아다닌다는 것이다. 사기꾼에게 속았다는 황당함과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 키트에게 ‘진짜’ 매트는 그 사기꾼을 잡아야 하니 제발 도와달라고 간청한다. 회사 보안 팀에 와서 그의 인상착의와 키트가 알고 있는 정보를 상세히 적어달라는 것이다. 거절할 수 없었던 키트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고, 그 때부터 문제는 점점 더 깊이를 알 수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한다. 꼭두각시를 조종하듯 상황을 이리저리 가지고 노는 사악한 자, 끝을 알 수 없이 커져만 가는 치명적인 사건들이 키트의 삶 전체를 뒤집어놓는다. 마지막 장을 넘길 때까지, 결말은 예측할 수 없다.

<저자 소개>

케이트 화이트(Kate White)는 <코스모폴리탄> 편집장을 지내고 현재 작가로 활동 중이다. 전작으로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오른 《Hush》, 《The Sixes》 등이 있다.

제목 : ONE MILE UNDER
가제 : 1마일 아래
저자 : Andrew Gross
출판사: William Morrow
발행일: 2015년 4월 7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소설



강가에서 발견된 시체 한 구, 조용한 마을에 잇따르는 의문의 사고, 생존을 위한 악마와의 거래

작가의 전작 시리즈에서 경찰로 등장해 수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타이 호크가 거대한 권력과 음모에 맞서는 인물로 다시 돌아온 새로운 작품이 완성됐다. 새로운 시추기술이 개발되면서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지가 된 미국 콜로라도를 무대로, 거대 에너지 기업의 은밀한 거래와 짓밟힌 농민들의 치열한 싸움이 펼쳐진다.

대학을 졸업하고 큰 회사 사무실에 가만히 앉아 인생을 허비하는 대신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살기로 결심한 대니 할러는 콜로라도 아스펜에서 급류 타기 가이드 일을 하고 있다. 여느 때처럼 관광객들과 함께 가파른 산 돌레를 따라 물살을 가르며 내려오던 대니는 강가 한 켠에서 시체 한 구를 발견한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듯한 그 시체는 놀랍게도 대니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트레이 왓킨스였다. 경찰은 사고사라는 결론으로 사건을 금세 종결시키지만, 누구보다 아웃도어 활동에 익숙한 트레이가 카약이 뒤집혀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대니는 쉽게 납득하지 못한다. 사고 현장에 돌아간 대니는 몇 가지 수상한 단서를 발견하고, 지역 경찰서장이자 한 때 계부였던 웨이드 던을 찾아가 자신의 의혹을 설명한다. 하지만 웨이드는 다 끝난 사건이라는 대답만 반복할 뿐이다. 그런데 답답해하던 대니에게 인근에서 관광객들에게 열기구를 태워주는 일을 하는 론이 연락을 해온다. 그 사건과 관련하여 긴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는 것. 론은 그녀가 트레이의 시체를 발견한 바로 그 날, 열기구를 타고 공중에 올랐다가 수상한 장면을 목격했다고 말했다. 대니는 자신의 의혹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분명하다고 확신하지만, 론 마저 열기구에 탄 채 관광객 네 명과 한꺼번에, 끔찍한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만다. 일이 뭔가가 단단히 잘못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대니는 다시 웨이드를 찾아가 두 사고가 모두 살인이라는 의혹을 강력히 주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리겠다고 길길이 날뛰다. 웨이드는 혈기왕성한 그녀가 위험한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결국 대니의 대부이자 자신의 절친한 친구 타이 호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시추 기술을 휘두르는 거대 기업, 가뭄으로 생업을 잃은 농민들의 처절한 사투

플로리다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던 보안 전문가 타이. 자신이 해결했던 이전 사건의 끔찍했던 기억에서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가진 그는 딸이 문제를 일으켰다는 웨이드의 전화 한 통에 아무 망설임 없이 콜로라도로 날아온다. 타이와 대니, 두 사람은 조용한

마을에 발생한 이상한 일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추적하기 시작한다. 수상한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했다. 두 사람은 초대형 에너지 기업 RMM이 마을 곳곳에 돈을 쏟아 부으며 운동 경기장에 화려한 전광판에 노인 요양시설까지 지으며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모두 이 지역의 땅 속, 1마일 아래에 매장된 석유와 천연가스를 시추해가는 대가였다. 문제는 시추 기술로 인해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되고, 지역 모든 농가들이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는 처지가 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생계를 잃고 참다 못한 농민들은 RMM을 상대로 소송을 벌이지만, 대기업의 교활한 수작에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를 배신하는 비극만 이어진다.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들과 어떻게든 더 많은 지하자원을 뽑아낼 생각에만 사로잡힌 에너지 기업. 양쪽 모두 ‘물’을 독차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혈안이 되어 살인도 불사하는 지경에 이른다.

독자들을 폭 빠져들게 하는 각양각색 다양한 인물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생존’을 위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는 무서운 현실이 빠르고 긴박하게 전개된다. 작가는 이 이야기 속에서 환경도 사람도 이윤을 위해서라면 거들떠보지 않는 대형 기업의 무시무시한 관행과 시추 기술의 숨겨진 문제점을 고발한다.

<저자 소개>

앤드류 그로스(Andrew Gross)는 《Everything to Lose》, 《15 Seconds》, 《No Way Back》, 《Eyes Wide Open》, 《Don't Look Twice》, 《Reckless》, 《The Dark Tide》, 《The Blue Zone》 등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다수 발표한 소설가다. 그의 작품은 25개국에 번역 출간되었다.

제목 : THE OTHER SIDE OF THE WORLD

가제 : 지구 반대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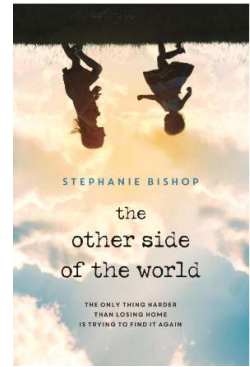
저자 : Stephanie Bishop

출판사: Hachette Australia

발행일: 2015년 6월 30일

분량 : 272 페이지

장르 : 소설



결혼, 출산, 육아로 생기를 잃어버린 젊은 여성, 낯선 호주 대륙으로 내키지 않는 이민을 떠나다

1963년, 영국 캠브리지에 살고 있는 샬롯은 대학 강사로 일하는 남편 헨리와 함께 아이를 키우며 우울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아이를 키우는 일이나 결혼 생활 모두 샬롯의 인생을 너무나 무기력하고 단조롭게 만들어 버렸다. 아직 갓난아기인 둘째 루시가 잠든 사이 홀로 산책에 나선 샬롯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는 일에 찌들어 혼자 있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곁에 있지 않은 아이의 환영에 시달린다. 루시가 태어난 후 혼자만의 시간은 손에 꼽을 정도였던 나날들. 이렇게 잠깐 혼자 걸어도 마치 아이를 안고 있는 것처럼 어깨에 기댄 루시의 머리 무게가 느껴지는 이상한 기분. 간밤에는 남편과 빈에 가서 화려한 색깔이 가득한 어떤 그림을 함께 바라보는 꿈을 꾸었다. 그 화사한 캔버스를 보다가, 헨리는 샬롯에게 속삭였다. ‘당신의 영혼이 만들어낸 색이야.’ 하지만 꿈에서도 샬롯은 그리 기쁘지 않았다. 아직 그에게 말하지 못한, 그녀 몸 안에서 자라고 있는 또 하나의 생명에 대해 꿈 속에서조차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각, 헨리는 집에서 잠에서 깨어나 칭얼대는 루시를 안고 있다. 겨우 다시 잠든 아이를 놓히고, 아이가 태어난 후 7개월이 흘렀다는 생각에 혼자 조금 놀란다. 그리고 문득 그 날 아침 우편함에 누군가 넣어놓고 간 광고 전단으로 눈길을 돌린다. ‘서니 사이드로 오세요!’ 활기찬 그 문구 아래에는 노란 금발 여자 두 명이 빨간 수영복을 입고 시드니 하버에서 수상스키를 즐기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찍힌 글자들. ‘호주에서 여러분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햇살이 더 환히 비치는 곳에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좋은 곳.’ 그 순간, 헨리는 두통과 구역질에 밤새 시달리며 한 두 시간 밖에 못 잔 아내 샬롯을 떠올렸다.

집을 잃어버리고, 저 멀리 돌고 돌아 다시 힘겹게 집을 찾아가는 가슴 아픈 여정

원래 삶의 모든 희망이던 그림마저도 붓을 들 힘도 없이, 열정도 없이 모든 기력이 소진된 채 맥없이 살아가던 샬롯. 남편 헨리는 현재의 삶에 큰 불만이 없지만 아내가 힘겨워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발견한 호주 이민에 관한 광고 전단은 그에게 해답처럼 느껴졌다. 침울하고 습한 영국에서 벗어나 화창한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확신했다. 빛과 태양, 기회의 땅 호주로 갈 생각에 한껏 부풀어오른 그와 달리 샬롯은 낯선 곳보다 익숙한 곳

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들뜬 남편을 설득하고 싸울 기운도 없었다. 결국 주저하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관망만 하는 동안 온 식구가 헨리에 손에 이끌려 지구 반대편 호주 땅으로 가게 된다. 도착한 곳은 호주 대륙 서남부의 퍼스라는 도시. 따스하다기보다 살갓을 쏘이듯 내리쬐는 따가운 햇볕을 맞으며, 헨리와 샬롯은 서서히 깨달는다. 이곳에서의 삶은 둘 중 어느 누구도 바라던 삶이 아님을. 샬롯은 이곳 어딘가에 정말 자신이 속할 곳이 있는지 찾아 헤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면 얼마나 먼 길을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한다.

호주에서 주목 받는 젊은 작가인 스테파니 비숍은 집을 잃어버리는 일보다 더 힘든 유일한 일이 바로 집을 다시 찾는 일임을 쓸쓸하게 그려내었다. 1960년대 영국과 호주, 인도를 오가며 ‘집’을 찾아 헤매는 한 여성의 가슴 아프지만 아름다운 이야기가 담긴 이 소설은 조금씩 부서져가는 결혼 생활, 너무나 다른 두 세상으로 각각 갈라서버린 두 사람과 이루어질 수 없는 야망, 드넓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속할 곳을 찾으려는 처절한 노력을 잔잔하지만 깊은 통찰이 담긴 글로 그려내었다.

<저자 소개>

스테파니 비숍(Stephanie Bishop)은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대학교에서 글쓰기 수업을 맡고 있다. 소설 데뷔작인 《The Singing》은 호주 일간지 <시드니 모닝 헤럴드> 선정 ‘최고의 젊은 소설가상’을 수상했고 ‘캐슬린 미첼 상(Kathleen Mitchell Award)’ 결선 후보에도 올랐다. 또한 《Dream England》는 2014년 ‘더 오스트레일리언/보글 문학 상(The Australian/Vogel Literary Award)’ 결선 후보로 선정됐다. 현재 호주와 영국의 다양한 매체에 도서 리뷰와 글을 기고하면서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제목 : THE SECRETS OF LAKE ROAD

가제 : 레이크 로드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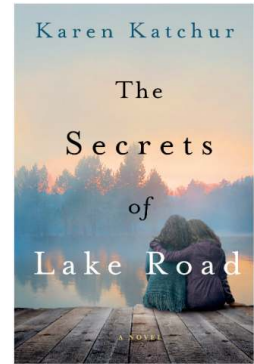
저자 : Karen Katchur

출판사: Thomas Dunne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4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소설



철었던 시절에 일어난 끔찍한 사고, 긴 세월 감춰진 호숫가의 비밀이 뜻하지 않게 세상에 드러나 다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안고 살아온 조. 고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남자친구가 호수에 빠져 세상을 떠난 끔찍한 사건에 자신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관한 그 비밀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다. 아무렇지 않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평범하게 사는 조는 여름만 되면 어린 시절을 보낸 호숫가 마을의 친정 집에 딸아이 캐롤라인을 보낸다. 하지만 쿡쿡 찌르는 죄책감과 솟구치는 기억들 때문에 정작 자신은 고향집에 머무를 수가 없다. 조의 열 두 살 딸인 캐롤라인에게는 여름마다 엄마가 데려다 주는 호숫가 마을이 전혀 다른 의미에서 특별한 곳이다. 매년 올 때마다 변함없는 모습을 간직한 채 친숙함과 편안함을 안겨주는 따뜻한 마을로 늘 기억하며 오고 싶어하는 장소인 것이다. 그래서 왜 엄마는 자신만 내려주고 서둘러 마을을 벗어나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캐롤라인이 느낀 마을의 고요함과 평온을 모두 깨뜨려버린 사건이 발생한다. 가족들과 여행 온 사라 스타라는 이름의 일곱 살 꼬마 아이가 호수 주변에서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리고 캐롤라인은 살아 있는 사라를 마지막으로 본 목격자였다. 꼬마의 실종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기 시작한 캐롤라인은, 적극적으로 아이를 찾아 나선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수색을 펼치지만 흔적 하나도 발견되지 않고, 결국 아이가 호수에 빠졌으리라는 전제로 구조 팀이 호수 바닥까지 파헤친다. 무성한 해초만 건져 올리기를 수십 차례 반복되던 중에, 갑자기 이상한 물체가 발견된다. 굉장히 오랫동안 물 속에 잠겨 있던 것으로 보이는 사람의 뼈였다. 조가 세상에 제발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길 바라던, 죽을 때까지 감추고 싶었던 기억의 흔적이었다.

가족의 의미, 비밀이 가진 파괴적인 힘, 한 아이의 뼈아픈 성장기를 실감 나게 그린 스릴러

흉흉한 사건이 이어지면서 고요하던 호숫가 마을은 쑥대밭이 되고, 사라를 찾아나선 캐롤라인의 앞에 조가 지금까지 감추고 살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캐롤라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 가족에 관한 모든 것을 뿌리부터 산산이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비밀이었다. 조와 남편 케빈은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삶을 어떻게든 덮어 보려 애쓰고, 아직 때문지 않은 그들의 순수한 딸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한다. 그리고 어두운 기억을 간직한 조와 어린 딸을 잃어버린 사라의 엄마,

두 여성이 삶이 예기치 못한 지점에서 교차하면서 충격적인 사건들이 이어진다.

따스한 태양 아래 즐거운 여름을 보내는 호숫가 마을. 여름 한 철 머무르는 관광객들에게는 그저 신나는 여가 장소일지 모른다. 그러나 호수의 투명하고 맑은 표면 아래에 깊이를 가늠할 수도 없는 시커먼 진흙 바닥이 자리하듯, 대를 이어 호수 가까이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힘겹게 잊고 살아야 하는 과거와 전설이 있다. 긴 세월 지켜온 비밀이 드러나면서 나타나는 파괴적인 영향과 고통스럽게 표면 위로 떠오른 진실, 순수함의 상실을 그린 한 편의 스릴러로 명료한 문장이 돋보인다. 사건은 여러 핵심 인물들의 관점에서 번갈아 가며 전개되며 긴박감을 더한다. 여름마다 사람들로 북적이든 평범한 휴양지의 활기찬 분위기를 완전히 대조되는 긴장감, 미해결 범죄의 그림자와 절묘하게 결합시킨 작품이다.

<저자 소개>

카렌 케처(Karen Katchur)는 웨스트체스터 대학에서 형사정책을 공부하고 이스트 스트라우즈버그 대학에서 보건과 물리 교육학 석사를 취득했다. 위 작품은 그녀의 소설 데뷔작이다.

NON-FICTION

제목 : I CAN SEE YOU NAKED

가제 : 벗고들 앉아 계시네요

저자 : Ron Hoff

출판사: Andrews McMeel Publishing

발행일: 1992년 6월 1일

분량 : 25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연설과 발표마다 연습하는 긴장감, 우스꽝스러운 상상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를 해야 할 일이 생기면 대부분이 잔뜩 긴장하게 마련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긴장감을 달래는 묘안으로, ‘청중이 옷을 다 벗고 앉아 있다고 상상하라!’는 조언이 제시되곤 한다. 저자는 ‘두려움을 없애고 발표를 훌륭하게 하는 법’이라는 아주 정직한 부제목이 달린 이 책에서 발표자가 머릿속에서 청중의 옷을 벗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조목조목 소개한다. 뛰어난 발표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을 비롯해 처음 연설을 시작할 때 기억해야 할 사항들, 긴장감과 지루함을 없애는 법, 질문에 대처하는 방법 등 발표 준비단계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발표자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조언만 골라 간결하고 재치 넘치게 설명한다.

책은 총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1부 ‘발표란 무엇인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의 핵심이 되는 조언은 ‘공에서 눈을 떼지 마라’로, 발표자가 연설에 무작정 덩벼들기보다 큰 즐거움을 잡을 수 있도록 발표와 연설을 하는 목적과 이유, 의미를 짚어보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일을 일상처럼 하고 있는 다양한 직업의 예를 보여준다. 또 대본을 써서 달달 외우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각화 방식과 기억력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과, 발표 전에 꼭 확인해야 할 28가지 항목을 목록으로 제시한다. 2부 ‘첫 90초의 절대적인 중요성’에서는 ‘청중들에게 기쁜 마음을 전달하라’는 팁과 함께, 발표를 앉아서 하는 것과 서서 하는 것의 장단점을 먼저 살펴보고, 서서 이야기할 때 꼭 지켜야 할 점,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굳이 개그맨처럼 우스운 이야기를 하거나 요란한 몸짓을 하지 않고도 청중의 관심을 서서히 끌어 모으는 요령, 서두의 어색함을 달래려고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법을 활용할 경우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질문과 행동을 상세히 설명한다. 3부 ‘긴장감, 내면의 공포감 달래는 법’은 발표자가 설사 엄청나게 떨리더라도 절대 그 사실을 입 밖에 내지 말라는 따끔한 조언으로 시작한다. 청중에게 걱정을 안겨주면 전달하려는 내용에 힘이 덜 실리고 청중에게 그 불안이 전염되어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고, 그 불편함이 다시 발표자에게 전해져 더욱 자신감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저자는 5분 정도 걷기, 심호흡 하기, 자신에게 질문 던지기 등 긴장감을 완화하고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소개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상을 남기겠다는 굳은 결심이 긴장감을 키우며 때로는 진솔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온다고 조언한다. 또 발표하면서 손을 자연스럽게 두는 법, 잠 못 이루기 쉬운 발표 전날 밤에 꼭 지켜야 할 사항들까지 소개한다.

훌륭하고 감동적인 발표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을 단계별로 꼼꼼하게 소개한 실용서

4부 ‘너무 지겹죠, 발표하는 나도 그래요’에서는 청중의 지루함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인데 대다수의 발표자들이 쉽게 간과하는 사항들을 짚어주고 유머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법, 목소리를 조절하는 법을 안내한다. 더불어 발표자 자신이 청중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발표장 전체를 먹구름이 낀 것처럼 우중충하고 침울한 분위기로 만들지 않고 사람들이 몰입하는 발표로 이끌어갈 수 있는 실용적인 방법들을 제시한다. 5부 ‘청중 파악하기’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그저 지루하지만 않은 발표가 아닌 청중의 마음 깊이 큰 감동을 주려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핵심 요소를 짚어본다. 발표자의 옷차림, 청중의 나이와 지식 수준 등 준비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과 발표자가 보여주는 몸짓의 중요성, 순간의 기회를 포착하여 청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내는 법 등이 소개된다. 6부 ‘질문에 답하기’는 자칫 시간만 통째로 잡아먹을 수도 있는 질문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을 때 대처하는 요령, 굉장히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법 등을 설명한다. 7부 ‘우리의 심금을 울린 위대한 연설가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남은 훌륭한 연설 문구와 인물들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상세히 살펴본다. 마지막 8부 ‘다음 발표를 위한 밑거름으로 만들자’는 발표가 끝난 후 좋은 평가를 받든, 그다지 좋지 않은 평가를 받든 다음에 더 훌륭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설명한다. 쉬운 설명과 생생한 예시들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 발표를 하더라도 최고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조언이 가득 담긴 훌륭한 지침서다.

<저자 소개>

론 호프(Ron Hoff)는 미주리 대학교를 졸업하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수십 년을 근무하다가 경영자 교육을 실시하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했다.

제목 : IS MAN TO SURVIVE SCIENCE?

가제 : 인간은 과학기술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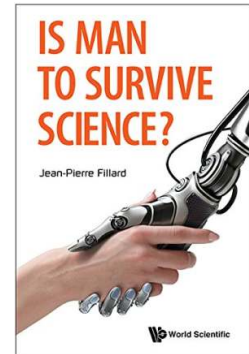
저자 : Jean-Pierre Fillard

출판사: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발행일: 2015년 5월 27일

분량 : 311 페이지

장르 : 과학



우리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되어버린 과학과 최신 기술, 그 미래를 진단해보는 책

21세기 초에 시작된 과학과 기술의 급속하고도 놀라운 발전은 세상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고 지금껏 생각지도 못한 가능성을 활짝 열어놓았다. 과학의 미래를 예견하는 사람들은 이 커다란 흐름이 인류가 겪게 될 뿌리 깊은 변화의 시초라고 믿는다. 공상과학 소설에 등장하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그저 허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최근 거둔 성과들을 보면, 충분히 그러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정말 인간마저도 돌연변이를 겪은 GMO의 한 종류가 되거나 인간을 닮은 로봇 혹은 하이브리드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날이 올까?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자손을 몸 바깥에서 인공적으로 얻는 일이 일상이 될까? 현 세대의 아이들은 우리보다 이 같은 변화를 직접 경험할 가능성이 크고, 그 아이들의 아이들은 지금과 확연히 다른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임을 생각하면 지금부터 이러한 문제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30년 동안 물리학자로 살면서 엄청난 기술들이 등장하고 과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본 저자는 현재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바로 내일부터 아주 일반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반적인 과학적 지식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발전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단시간에,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다가올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려는 시도 대신 현재의 변화를 토대로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은 미래의 모습을 다각도에서 살펴보는 것, 그것이 이 책의 주제다.

책은 총 10장으로 구성된다. 첫 다섯 장은 하나로 묶여, 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이제는 부정할 수 없이 큰 변화를 겪은 여러 분야들을 하나하나 살펴본다. 먼저 1장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에 앞서 원시생활을 하던 머나먼 과거에서 기술 혁명이 일어난 현 시점까지 역사가 어떤 단계를 거쳐 발전해왔는지 되짚어본다. 2장에서는 초소형전자 물리학 장비의 발전으로 ‘나노 기술’이라는 새로운 분야가 등장하고 생물학까지 그 활용 영역을 넓히게 된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한다. 3장은 정보 기술과 소프트웨어의 과학적인 발전이 로봇 공학과 인공지능, 가상 시뮬레이션 분야에 얼마나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현재까지 이룩한 성과와 드러난 문제점을 통해 앞으로의 변화 양상을 예측해야 대비할 수 있다

이어지는 4장에서는 생물학으로 시선을 돌려서, 광학 현미경에만 의존해야 했던 긴 세월을 거쳐 현재 세포와 유전자를 훨씬 더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새로운 장비와 기구가 얼마나 다양하게 마련되었는지 소개한다. 5장의 주제는 인간의 ‘뇌’다. 한 때는 절대 풀 수 없는 미지의 영역이었지만, 지난 10년 간 인지과학의 발달로 찾을 수 있었던 탐구의 열쇠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본다. 더불어 아직 예비 단계지만 뇌에 관해 현재까지 밝혀진 의미 있는 결과들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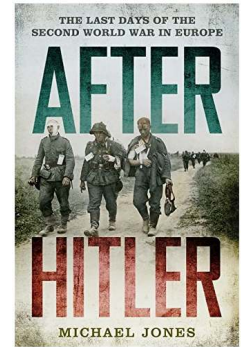
책 후반부를 구성하는 다섯 장은 이와 같은 기술 발전과 그 영향이 인간에게 도덕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고민해본다. 6장은 현 상황에서 인류의 생존 확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이 모든 변화를 아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는 태도와 아무런 가치 판단도 없이 변화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되짚어본다. 7장은 이제 과학과 기술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과학계의 연구 활동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8장은 유전자 조작, 전자장비의 이식, 뇌를 컴퓨터와 연결하는 기술에 이르기까지 기술이 가하는 공격에 인류가 표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진단하고, 기계가 만천하를 지배하는 상황을 합리적인 변화로 받아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생각해본다. 9장은 유전자 조작 기술에 주목하여, 인위적으로 ‘아무 결함이 없는’ 아기를 만드는 시대가 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본다. 더불어 ‘과연 그 시점이 오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더 필요할까?’ ‘인간이 다른 존재들보다 더 나은, 꼭 필요한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던진다. 마지막 10장은 과학과 기술의 대변화가 신과 인간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살펴보고, 컴퓨터로 운영되는 ‘신경 신학’이라는 분야가 정말 신의 존재를 향한 믿음을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해본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진 과학과 기술이 현재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고, 보존해야 할 긍정적인 측면과 적극적으로 막거나 바뀌어야 할 문제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볼 수 있는 유익한 책이다.

<저자 소개>

장 피에르 필라드(Jean-Pierre Fillard)는 프랑스 몽펠리에 제 2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제목 : AFTER HITLER
가제 : 히틀러가 떠난 후
저자 : Michael Jones
출판사: John Murray
발행일: 2015년 1월 15일
분량 : 400 페이지
장르 : 역사



히틀러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날부터 전 세계에 평화가 선포된 날까지 10간의 진실

아돌프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에 베를린의 한 병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지만 유럽 서부에서 나치 정권의 몰락이 공표된 날은 5월 8일이고, 러시아에서는 그보다 하루 뒤인 5월 9일에서야 나치 독일의 항복이 선언됐다. 평화가 찾아왔다는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왜 이토록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까? 연합국이 나치의 무조건 항복을 허가한 것을 기념하는 유럽전승기념일이 70주년을 맞는 올해, 이 책은 20세기 세계 역사를 바꾸어놓은 히틀러의 자살 이후 10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집중 조명한다. 히틀러의 자살 바로 다음날 나치의 선전 장관이던 요제프 괴벨스도 그 뒤를 따라 목숨을 끊었고, 1933년부터 이어지던 독일의 ‘제 3제국’은 칼 되니츠 총통이 집권하는 시대로 넘어갔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이 승리에 정식으로 환호를 보낸 날까지 10일의 기간 동안, 유럽에서는 물밑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다. 저자는 1945년 4월 30일부터 5월 9일까지 10일의 기록을 하루씩 들여다보면서 역사상 가장 매섭게 몰아친 유럽 대륙의 전쟁이 전 세계 역사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넓은 시야에서 바라본다. 소위 ‘3대국’으로 불리던 미국, 영국, 소비에트 연방의 관계가 이 시기에 급속히 도달한 한계점과 한껏 고조된 혼란의 시간을 정리했다.

책에서는 카운트다운 방식으로 당시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복잡하게 얽힌 국제 정세와 외교 문제를 중요한 주제별로 제시한다. 더불어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유럽 전체를 집어삼켰던 대참사와 그로 인해 발생한 엄청난 심리적 피해에 대해서도 짚어본다. 저자는 유럽의 서쪽과 동쪽이 모두 ‘빅토리 인 유럽 데이(VE-DAY)’라 부르며 매년 축하하는 전승기념일의 진정한 의미와 그 날이 어떤 과정을 거쳐 찾아왔는지 뿌리부터 다시 생각해본다. 전승기념일까지 10일의 시간, 그 하루하루는 연합군이 기울인 공동노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히틀러의 죽음 이후 자칫 연합군에 자칫 큰 균열을 몰고 올 뻔 했던 치열한 대립각이 여실히 담겨 있다. 급속히 고조됐던 그 위기의 순간은 지금까지 일반인들에게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연합국의 참예한 갈등과 나치 후계자의 숨겨진 역할, 거대한 영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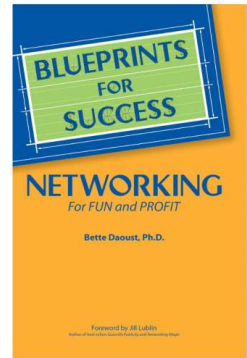
저자는 이 책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연합국 모두를 공정한 시선에서 조명한다. 특히 연합군의 승리 이후 이어진 냉전으로 인해 유럽 서부에서 수상한 시선으로 평가되기도 하는 소비에트 연방

에 대해서도 설부른 평가 대신 사실을 전달하는데 주력했다. 히틀러의 후계자로 독일의 정권을 넘겨 받은 되니츠 제독이 발생시킨 파괴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가 이 중대한 시기에 했던 역할은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고 과소평가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 그의 영향력은 막대한 수준이었다. 이와 함께 나치가 무너지고 자유를 찾은 사람들, 반면 불확실한 미래를 맞닥뜨려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도 소개된다. 영국과 미국 측 연합군에 강제로 들어가야 했던 독일 전군 파 군인들, 영국의 처칠 수상과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을 한꺼번에 상대해야 했던 스탈린 정권까지, 이 책은 이 시기 유럽 전역에 퍼진 불신, 그리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미래, 더 안전한 미래’라는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 거대한 국가들이 희망 이름으로 보여준 놀라운 협력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격동의 10일, 매초 매 시간이 아슬아슬했던 그 기간의 전 세계 정세와 그 변화를 이끌어낸 무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객관적인 시선으로 정리한 책이다.

<저자 소개>

마이클 존스(Michael Jones)는 브리스톨 대학교에서 역사학 박사를 취득하고 글라스고 대학교, 윈체스터 칼리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영국 왕립역사학회와 군대역사위원회 회원으로 현재 작가, 미디어 컨설턴트, 강연자로 활동 중이다. 《STALINGRAD》, 《LENINGRAD》, 《THE RETREAT》, 《TOTAL WAR》, 《THE KING'S GRAVE: THE SEARCH FOR RICHARD III》 등 전쟁 역사에 관한 저서를 다수 발표했다.

제목 : NETWORKING FOR FUN & PROFIT
가제 : 즐겁고 유익한 인적 네트워크 만들기
저자 : Bette Daoust
출판사: Blueprint Books
발행일: 2014년 12월 21일
분량 : 277 페이지
장르 : 경제경영



개인과 사업의 성공에 반드시 필요한 관계망, 차별화된 전략으로 끈끈한 인맥을 만드는 전략

한 번이라도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아봤거나 서비스를 제공해본 사람은 인맥의 중요성과 이 관계망을 형성하는 기술이 얼마나 필요한지 잘 알 것이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다양하게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체 모를 온갖 사교 모임이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회를 기웃거리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에게 꼭 필요한 사람과도 안면을 트는 것, 혹은 슈퍼마켓이나 시장에서 아무나 붙잡고 이야기해보는 것도 물론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대신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게다가 자신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상황이 돌아갈 가능성도 낮고, 온갖 조사와 회의로 사전 준비를 해도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인맥 형성과 관리는 전자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상대방과 직접 만나 얼굴을 맞대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탄탄한 인맥 형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도움도 안 되고 방해만 되는 장소를 속속 골라 배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쓸데없이 낭비되는 시간과 돈을 아끼고 각자에게 가장 필요한 최적의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여 개인적으로나 사업적으로 성공을 거두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들이 이 책에서 상세히 제시된다.

사업상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열쇠는 무엇일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남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을 내가 먼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관계망을 형성한다는 건 상대를 속여서 내가 팔고자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게끔 만드는 것이 아니다. 관계망은 개인의 이득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남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진심으로 해줄 때 비로소 튼튼하게 형성된다.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처럼, 상대방에게 그 진심 어린 손길이 전해지면 자연히 그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차례차례 그 진심이 전달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 ‘나를 아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저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으레 걸만 맴도는 ‘안전한’ 대화만 오가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남들이 나를 거부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나 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려나 하는 걱정을 접고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동시에 유

익한 도움 혹은 성과도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설명한다.

무작정 덩버드는 소모적인 방법 대신 체계와 전략으로 확실한 관계망을 확보하는 실용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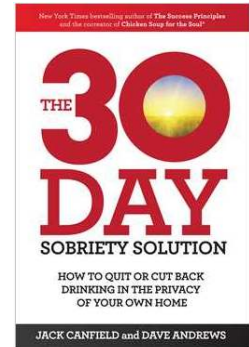
책은 총 11장으로 구성되며 풍성한 보충 자료도 함께 제공된다. 각 장에서는 일회성 마케팅 행사, 각종 단체와 유료 혹은 무료 회원 등록을 통해 운영되는 모임, 전략적으로 맺는 동맹, 기자회견, 신문광고, 시범운영과 같은 발표의 기회, 강연 등 사람들과 관계망을 처음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모임과 행사의 형태에 따라 각각 어떤 전략을 적용하고 어떤 점에 집중해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한다. 더불어 갓 형성된 관계를 굳건하고 끈끈한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법, ‘고객관계관리’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진 시스템처럼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도구를 활용하여 사업상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하는 이유와 중요성, 명함을 활용한 마케팅 전략, 인터넷을 통한 관계망 형성, 각종 인쇄 매체를 활용한 관계망 확대 전략, 소셜 미디어의 엄청난 파급효과와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방법까지 사업의 성공을 위해 각자가 전하려는 바, 얻으려는 바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고 얻을 수 있는 전략을 하나하나 소개한다. 보충 자료에는 읽으면 도움이 될 만한 책, 관계망 형성에 좋은 출발점이 될 협회와 그룹, 모임, 기관의 목록이 제공된다.

미사여구 없이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지혜를 확실하게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전략을 수립하고 더 많은 관계, 더 유익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이를 토대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값진 지침서다.

<저자 소개>

베티 다우스트(Bette Daoust)는 애리조나 프레스콧의 노스센트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공부하고 20년 이상 지역 로터리클럽 대표를 지내며 지역사회를 위한 일을 해 왔다.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포함된 여러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식시스템 구축, 발전전략 구상을 도우며 작가, 강연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다.

제목 : 30-Day Sobriety Solution
가제 : 30일 금주 프로그램
저자 : Jack Canfield, Dave Andrews
출판사: Atria Books
발행일: 2015년 8월 4일
분량 : 608 페이지
장르 : 자기계발, 건강



술을 끊거나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혁신적인 30일 프로그램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로 수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했던 작가 잭 캔필드가 금주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온 데이브 앤드류스와 힘을 합쳐 술 때문에 고통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혁신적인 금주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재활 시설이나 별도의 기관이 아닌, 각자의 집에서 시도해볼 수 있는 30일 프로그램이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알코올로 인한 사망자가 전 세계에서 10초에 한 명 꼴로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사실은 알코올이 큰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2,350만 명의 사람들이 알코올 문제에서 회복되어 새 삶을 살고 있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금주 모델을 소개한다. 잭 캔필드는 수십 년 동안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효과를 확인했던 방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금주 전문가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완성했다. 두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술로 고통 받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해본 결과 엄청난 효과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전한다. 이 책에는 다양한 성공 사례와 함께 30일 동안 실천할 사항을 하루 단위로 안내한다. 크게 5 단계로 나뉘는 이 일일 계획에는 자신에게 유익한 긍정적인 방향의 선택을 매일 조금씩 늘려갈 수 있게 유도하는 소중한 조언들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담겨 있다. 맨 처음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실천에 옮기고 싶은 기분과 마음을 먼저 끌어 내고, 보다 나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스스로 행동하도록 이끄는 이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금주를 해야 하는 당사자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스스로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다.

30일 프로그램에서는 매일 한 가지 회복 방법을 제시하고, 하룻동안 꼭 실천하고 완료해야 할 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총 다섯 단계로 나뉘는 이 프로그램의 첫 단계는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목표를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지 가능해보는 기본 과정이다. 처음 7일 동안 술 취하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고 현재 처한 심리학적인 고통과 술로 얻으려 하는 즐거움을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는다. 또 어설픈 금주 목표로 인해 되려 한층 무절제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적절한 목표를 세우는 법, 술을 마시는 진짜 이유를 통찰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술 생각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식생활 등을 소개한

다.

음주의 본질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을 수 있게 이끌어주는 책

2 단계는 술을 끊고 살고 싶은 결심을 무너뜨리는 정서적, 정신적 장애물과 잘못된 생각을 이겨내기 위해 꼭 필요한 내면의 힘을 기른다. 왜곡되고 일그러진 가치관, 생각, 믿음, 기분을 자신의 행복에 진정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정하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짓말의 문제, 무의식 중에 드는 생각들이 발휘하는 무서운 영향력 등을 상세히 알아본다. 이어 3단계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과 미래의 꿈을 흔들림 없이 지켜가고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올림픽 선수들이나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활용하는 ‘시각화’ 방법을 활용하는 요령과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스스로 성취 단계를 재확인하는 방법, 감사하는 마음의 필요성 등을 이야기한다. 4단계에서는 정신적, 정서적 건강과 신체적인 건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다양한 도구와 기술이 소개된다. 더불어 의미 있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두려움과 의구심의 본질과 이를 극복하는 법, 명상, 건강 회복을 위해 꼭 지켜야 할 다섯 가지 기본 원칙, 운동이 금주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 음주로 망가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해로운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다. 마지막 5단계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더 확대해서 실천할 수 있는지,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을 접고 각자에게 맞는 금주 계획을 수립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술을 줄이려는 사람, 완전히 술을 끊고 싶은 사람, 그저 금주의 필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맑은 정신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신경과학, 인지과학과 인지 치료, 효과가 널리 입증된 다양한 도구와 기술을 종합하여 명료하고도 실용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 소개>

잭 캔필드(Jack Canfield)는 <뉴욕타임스>를 비롯해 전 세계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의 공동 저자로 ‘Canfield Training Group’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변화와 업무 역량 향상을 돕는 일을 하고 있다.

데이브 앤드류스(Dave Andrews)는 ‘금주 전문가’로 미국과 세계 언론에 50차례 이상 출연했다. 미국에서는 최고의 금주 코치로 꼽히며 비영리단체 ‘Young People in Recovery and Advocates for Recovery’의 이사로도 활동 중이며 ‘The 30-Day Solution, LLC’의 CEO를 맡고 있다.

제목 : A PASSION FOR PARIS

가제 : 파리를 향한 열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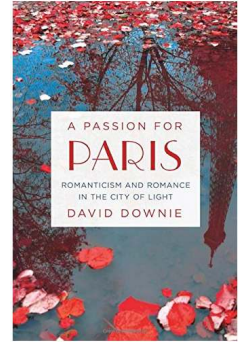
저자 : David Downie

출판사: St. Martin's Press

발행일: 2015년 4월 28일

분량 : 320 페이지

장르 : 여행



15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낭만적인 도시로 이견 없이 꼽히는 파리,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과 분위기 있는 공원, 예술가들의 작업실, 카페, 레스토랑이 가득한 풍경, 1800년대의 모습이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거리들, 파리는 곳곳에서 로맨스가 퍼져 나오는 도시다. 낭만주의가 맨 처음 형성된 베를린, 빈, 런던도 아니고 ‘로맨스’의 뿌리라고 할 수는 베니스나 로마도 아닌 파리가 세계에서 가장 로맨틱한 도시가 된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도 150년 넘는 세월 동안 그 타이틀을 변치 않고 유지해 온 비결은 무엇일까?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이 찾은 해답을 제시한다.

예술, 건축, 도시의 풍경, 아름다운 강 기슭과 다른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는, 파리에서만 가능한 일상도 그 로맨틱한 분위기에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요소들도 파리의 매력을 만드는 핵심이다. 불평불만이 많은 파리 시민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성향이 지배적인 특이한 문화, 수수께끼와 즐거움, 도전 과제를 한꺼번에 던져주는 풍성한 역사가 바로 그 숨겨진 요소들이다. 또한 이 빛의 도시 파리를 찾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화려함, 세련됨,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자유분방한 분위기는 사실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폭동과 반란, 대혼란, 우울함, 그리고 기존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낭만주의 시대 문학과 예술, 음악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저자는 무엇이 파리를 로맨틱한 도시로 만들었는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서 독자들을 19세기로 데려간다. 수많은 작가, 화가, 음악가들이 파리를 두고 낭만적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이것이 지금까지도 그렇게 인식되는 이유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낭만주의가 꼭 문학이나 예술에만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 정치에 끼친 영향도 상당했다. 1800년대 전반은 사회를 현 상태로 유지하려는 흐름에 크게 반발하던 활동가들이 무수히 등장한 시기이고, 파리 시민들은 일제히 폭동을 일으켰다. 이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충돌을 여는 시작점이 되었다.

30년 이상 파리를 사랑하고 탐방한 작가의 방대한 지식이 어우러진 새로운 파리 여행

저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더불어, 30년 넘게 파리 곳곳을 직접 돌아다니며 찾아낸 다양한

명소를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마레 지구와 룩셈부르크 공원, 아르세날 도서관 등 낭만주의의 성지라 할 수 있는 장소들을 돌며 빅토르 휴고, 알렉산드르 뒤마, 조르주 상드, 외젠 들라크루아의 일생과 사랑, 업적을 이야기한다. 연대를 정리하거나 논리 정연한 줄거리를 굉장히 못마땅하고 부적절한 것으로 여기던 이 시대 문학은 ‘낭만주의’의 정수를 그대로 담고 있다.

파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 복잡하고 한 마디로 정의할 수 없이 애매한 면이 있으면서 모순점도 많은 특징과 더불어 약점이나 잘못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저자는 낭만주의와 로맨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파리를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독자들을 파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여정으로 이끈다. 그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진짜 파리는 마음 속에만 존재하며,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기에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다. 파리와 프랑스 예술가들에 관한 저자의 백과사전과도 같은 방대한 지식을 통해 파리에 숨겨진 마법 같은 이야기를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해볼 수 있는 책이다. 파리를 사랑하는 사람들, 처음 파리를 방문하려는 사람들 모두 너무나 잘 알려진 도시지만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해볼 수 있는 열쇠를 이 책에서 찾을 수 있다.

<저자 소개>

데이비드 다우니(David Dawnie)는 미국에서 태어나 1980년대 중반부터 파리에서 살고 있다. 전 세계 여러 매체에 여행기를 기고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Paris, Paris》, 《Paris to the Pyrenees》 등이 있다.